

“중국 저가 물량 공세로 도내기업 영향 심각”

전북상협, 고부가 제품개발 등 품질향상 노력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절실

도내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매출·수주 등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북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도내 11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수출 확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따르면 지역 기업들의 38.6%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29.8%로 집계되었다.



특히, 중국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는 15개 품목에 포함된 전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이차전지 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역 기업들은 내수시장 거래

추월 이상 시점으로는 ‘4~5년 이내’가 52.6%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2~3년 이내’가 24.7%, ‘6~10년 이내’가 11.3%,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7.3%로 집계되어 신기술 및 우수한 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 중국간 거래에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부진으로 309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84억 5천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4년 5월말 현재 대중국 수출량은 8,1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 감소한 반면, 수입은 전년 대비 23.0%가 증가한 1억2,624만 달러로 집계되어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산업 보호조치 강구(27.5%)와 신규 시장 개척지원(19.8%), 무역금융 지원 확대(9.2%) 순으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중국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술 및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은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의 대폭 확대와 함께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구로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기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 중국간 거래에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부진으로 309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84억 5천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4년 5월말 현재 대중국 수출량은 8,1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 감소한 반면, 수입은 전년 대비 23.0%가 증가한 1억2,624만 달러로 집계되어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6일 오전, 본청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주재했다.

‘농업 발전 공동 목표 달성 적극 협력’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농업인 단체장 초청 간담회 주재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6일 오전, 본청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낙농육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회장, 전국사과생산자협회 김충근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청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기상 악조건에도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단체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에 출하될 농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품목별 병해충 제재 방제 및 생육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 청장은 발농업 기계화, 지역맞춤형 신상품 개발·보급,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안전한 농작업 실천 및 농업인 윤열질환 예방 캠페인 등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과제와 기술 보급 사업을 설명하며, 농업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인단체장들은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농업 현장의 기술적 어려움과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농업인 권익 증대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증시 반등에... ‘반대매매’ 공포, 한시름 덜었다

증시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우려됐던 반대매매 공포가 증시 반등과 함께 한시름 덜어낸 분위기다. 하지만 또 한 번 더 시장이 휘청일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장 전 국내 주요 A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주는 지난 2일 대비 8배 가량 증가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같은 기간 담보 부족 계좌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B증권사 관계자는 “담보 부족 계좌수가 이날 초 대비 급증했는데 오늘

장이 반등해서 실제로 반대매매가 실행된 계좌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날처럼) 한 번 더 급락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거래, 미수거래 등에 의해 이뤄진다. 증권사들의 담보유지비율은 종목마다 다르지만 대략 140% 이상이다. 주식 하락 등 이유로 담보비율을 못채웠을 경우 증권사는 각 고객에게 통보하는데 이를 1~2거래일 만에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음날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증시가 급락

하면서 반대매매 우려가 고조된 건 이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해서 반대매매가 늘고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면서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투자자들은 지난해 라덕연 사태 때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증시가 반등하면서 이같은 부담을 덜어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2441.55)보다 84.61포인트(3.47%) 상승한 2526.55를 가리키고 장중 5% 넘게 뛰여 2580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수거래의 경우 지난해 라덕연 사태 이후 차액결제계좌(CFD) 거래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같은 추세가 지속 중이다. 미수거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수금을 채워넣기 전인 3거래일 안에 포지션을 청산하는 초단타매매의 일종이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금액 등은 매일 증권사로부터 수치를 취합해 다음날 오후 3시30분에 확인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지난 2일까지만 게시된 상태라 최근 급락 상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초단타 용자거래인 미수거래가 지난해 CFD 사태 이후 줄처럼 줄고 있지 않다”며 “현재 9200억원 수준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균 2000억원 수준에 비해 최대 5배 정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전북자치도 기업의 지방세 정보, 이제 한권으로 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6일 기업에 유용한 세금 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서 1,9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앞서 ‘1 기업-1 공무원 전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들이 알고 싶어하는 지방세 관련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사항 △지방세 개요·세목별 안내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납세자 구제 제도 등 세금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위한 감면제도는 △벤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인구 감소 지역·기회 발전 특구의 창업·이전 감면 등 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세분화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감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정 규정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감면 요건을 이행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의도치 않은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책자는 도와 시·군의 1 기업 1 공무원 전담 기업에 배포,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도, 시·군 및 기업 출연기관의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안내서를 통해 기업과 도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해리농협 소금쿠키’ 라이브커머스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해리농협(조합장 곽정용)과 함께 7일 오전 11시에 ‘해리솔트 소금쿠키 출시기념’ 라이브커머스를 농협몰 ‘신선플러스’ 와케이버 ‘소금라이브’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해리농협 소금쿠키(랑그르샤) 출시를 기념하여 휴가철 가족간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할인해서 진행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소금쿠키(100g) 2개, 소금사탕(250g) 2개 32% 할인되어 있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32% 할인되어 26,900원으로 300개 한정 판매된다.

해리농협의 ‘소금쿠키(랑그르샤)·소금사탕 꾸러미’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전북 고창의 밀을 수 있는 천일염을 사용하여 달콤짭조름한 간편 간식으로 온라인 인기상품이다. 특히, 랑그르샤는 프랑스어로 ‘고양

이의 혀’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얇고 바삭한 고급 과자이다.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해리소금이 더해져 특별한 풍미를 자랑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해리농협은 농식품 가공공장 경영대상 ‘금상’을 수상하는 등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농협 가공 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국산 농식품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